

■ 권중달교수의 역사칼럼<10>

실이지죄(實爾之罪)

실제로 너의 죄이다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공직자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북위(北魏) 시절의 고필(古弼) 같은 사람이 취한 행동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서기 5세기에 동아시아의 북쪽에서는 탁발씨가 세운 위(魏)나라가 그 세력을 키워 나가고 있었다. 역사에서는 이를 북위라고 부르는데, 이는 삼국시대에 조조(曹操)의 아들 조비(曹丕)가 세웠던 위(魏) 왕조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북위는 남쪽으로 유씨(劉氏)의 송(宋)나라가 있었지만 그 북쪽으로 여러 왕조가 난립(亂立)하였던 이른바 16국 시대를 통일하고 마감하였다. 바로 북위의 황제 태무제가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유연(柔然)을 공격하여 멀리 쫓아 버리면서 이룩한 업적이다. 태무제는 후한 영제(靈帝) 시절에 황건난(黃巾亂)이 일어나면서 혼란과 분쟁으로 얼룩진 250여 년간인 한말(漢末)에서부터 오호(五胡) 16국 시대까지 분열의 기간을 마감하고 북위가 북조를 완전히 통일한 것이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북위의 북조 통일은 이를 계승한 수(隋)가 남조까지 합병하게 되었으니 실제로 중원통일을 통일하게 된 것은 아마도 태무제가 시작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더 이상 북위에 대항할 세력이 없게 된 상황이 되자 태무제는 평화를 선언한다.

“어려 공신들이 부지런하게 수고한 지 오래되었으니, 모두 마땅히 작위(爵位)를 주어 집에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 조청(朝請)하거나 짐(朕) 앞에서 향연하면서 도리를 논하고, 계책을 진술할 수 있을 뿐이다. 의당 다시는 번거롭게 직책을 맡기지 않도록 할 것이니, 다시 현명하고 능력이 있는 인재를 천거하여 백관을 갖추게 하라.” 모든 관원들에게 그동안 고생하였으니 좀 편히 쉬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태무제는 자기 뒤를 이을 태자에게 정치적 훈련을 시작하게 하였다. 태무제는 아들 탁발황(拓跋晃)을 데리고 가서 유연을 토벌하였는데, 이때에 태자의 번득이는 지혜를 보였다. 그리하여 전쟁이 끝나고 나자 태자에게 만기(萬機)를 처리하는 황제의 일을 돕게 하였다. 후에 황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황제가 할 일을 훈련시키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었다. 백관을 태자에게 총괄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북조를 통일한 태무제가 이제 좀 쉬어야겠

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드디어 서기 444년 정월이 되자 황태자는 처음으로 백관을 총괄하기 시작하였다. 태무제는 아들인 태자가 정사(政事)를 제대로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보필할 사람을 임명하였다. 시중(侍中)이며 중서감(中書監)인 목수(穆壽)와 사도인 최호(崔浩) 그리고 시중인 장려(張黎)와 고필(古弼)에게 태자를 보필하여 모든 정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아마도 태무제는 자기가 좀 쉬더라도, 혹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라도 자기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이 계승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시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골라서 황태자 곁에 배치한 것이다.

황태자를 보필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인 고필이라는 사람은 사림(士林)이 충직하고 신중하며 소박하고 정직하였다. 그래서 그는 상곡(上谷, 하북성 회래현)에 가지고 있는 아주 넓은 원유(園囿)를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가난한 백성들에게 내려고 하였다. 평화의 시대가 되었으니 백성들을 챙기려는 것이다. 그래서 황제를 알현하고 이 일을 설명하고 허락받으려고 궁궐에 들어갔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때에 황제가 급사 중인 유수(劉樹)와 바둑을 두고 있었다. 황제는 고필이 들어왔지만 바둑 두는데 정신을 쏟느라고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바둑을 두는데만 열중하고 있었다. 고필은 하는 수 없이 오랫동안 황제 옆에서 바둑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바둑을 끝까지 않았다. 그러면 황제에게 이야기 할 기회는 사라질 것 같은 생각까지 들었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그는 갑자기 일어나서 황제와 바둑을 두고 있는 유수의 머리채를 잡고 마루 아래로 끌어당겨서 그 귀를 잡고 그의 등을 때리면서 말하였다. “조정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실로 너의 죄이다!”

결국 황제를 나무랄 수 없었기 때문에 황제의 바둑 대상인 유수를 때린 것이다. 유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황제가 바둑을 두자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또 황제가 좀 한가하게 쉬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또 어쩌면 황제가 바둑을 두자고 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황제에게 잘 보일 기회로 생각하였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고필의 생각은 달랐다. 큰 일이

끝났다고 하여도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해야 될 자질한 일들이 많은 것이다. 어쩌면 고필이 황제에게 건의하려는 일도 자질한 일에 속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자질한 일 하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데서 국가의 기초는 흔들리는 것이다. 그런데 만기를 다루는 황제와 바둑을 두면서 그 시간을 뺏는 유수를 봐 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필은 아마도 유수를 ‘아부쟁이’로 보았을 것이다.

허여간 이러한 상황이 되자 황제는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바둑돌을 던지면서 말하였다. “주청하는 일을 듣지 않은 것은 짐(朕)의 잘못인데, 유수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를 내버려 두라!”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고필은 자기가 황제에게 재갈을 받을 사안을 설명하였고, 황제는 고필의 안대로 처리할 것을 모두 허락하였다.

그러나 고필은 황제 앞에서 큰 소리를 냈으니 오히려 개인으로서의 감당하기 어려운 잘 못을 저지른 것이다. 고필은 바로 황제에게 사죄하였다. “신하가 되어 무례하기가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그 죄는 큼니다.” 그는 나가서 공거문(公車門)에 가서 관(冠)을 벗고 맨발로 죄를 받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태무제는 “내가 듣기에 사단(社壇)을 쌓는 공사를 하면서 빼돌려서 기술어지게 되었다고 하여도 면류관을 단정히 하고서 그것을 섬기기만 하면 신(神)이 복을 내려준다고 한다. 그러므로 경이 무슨 죄가 있었는가? 그러나 관을 쓰고 신을 신고 직주에 나아가라. 진실로 사직을 이롭게 할 수 있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온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니, 돌아보며 생각하지 마라.” 너그럽게 고필에게 관을 쓰고 신발을 신게 하면서 받아 준 것이다.

북위의 전통이 통일된 수당까지 내려온 이유를 이러한 신화와 이러한 황제가 있는 데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정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만 바둑 둘 시간조차 없다는 것이 고필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만약에 큰 일이 끝났다 하여 조그만 일을 방심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라를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필은 유수에게 ‘정사가 잘 못되는 것은 너의 죄라’고 하였지만 이 말은 공직자라면 마땅히 ‘정사가 잘못되는 것은 나의 죄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공적인 일을 맡은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 둘 말이다.

안동능곡회 33주년 기념 및 회장단 이·취임식



권오건 신임회장



안동능곡회 33주년 기념 및 제33·34대 회장 이·취임식이 7월 5일 오후 6시 30분 안동그랜드호텔 1층 아모르홀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김광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권영세 안동시장, 권숙동 안동중천회장, 권인택 전국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택기 전 국회의원, 권상용 안동과학대학교 총장, 권오의 대종회 사무부총장, 권영건 부회장공파종 회장, 권영택 정조공파종회장, 권영준 전 국립안동대 교수, 권기창 국립안동대 교수, 권영길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구원장, 김명호 경북도의원, 박재웅 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 권광택, 손광영, 김경도 안동시의원, 권충근 능우회장, 능곡회 및 능우회 역대 회장회 회원, 능곡회 부인회원, 로타리 등 봉사단체장, 신임회장과 관련된 회장 및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주최 측은 행사장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권영국, 김재영 2인조 색소폰 팀이 출연, ‘오동일’ ‘시계바늘’ 등 4곡의 연주가 끝나자 앙코르를 연주하는 바람에 ‘안동역에서’를 연주하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권순의 사무국장의 사회로 권기호 능곡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묘소 망배를 하고 권기형 상임부회장이 내빈 소개를 하였다. 이어 사무국장은 권해욱 대종회 회장 등 40여 명이 화환과 난, 꽃화분을 보내왔으며 아울러 참석하지 못한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의 축전이 왔다 고 소개했다. 때마침 김광림 국회의원이 행사장에 도착하자 사회자는 김 의원에게 축사를 부탁, 김 의원은 “능곡회 회장 이·취임식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시킬 심부름이 있

면 열심히 심부름을 하겠다”고 말했다. 곧 이어 권기호 회장은 나이 제한으로 능우회로 넘어가는 권순모르홀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김광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권영세 안동시장, 권숙동 안동중천회장, 권인택 전국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택기 전 국회의원, 권상용 안동과학대학교 총장, 권오의 대종회 사무부총장, 권영건 부회장공파종 회장, 권영택 정조공파종회장, 권영준 전 국립안동대 교수, 권기창 국립안동대 교수, 권영길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구원장, 김명호 경북도의원, 박재웅 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 권광택, 손광영, 김경도 안동시의원, 권충근 능우회장, 능곡회 및 능우회 역대 회장회 회원, 능곡회 부인회원, 로타리 등 봉사단체장, 신임회장과 관련된 회장 및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주최 측은 행사장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권영국, 김재영 2인조 색소폰 팀이 출연, ‘오동일’ ‘시계바늘’ 등 4곡의 연주가 끝나자 앙코르를 연주하는 바람에 ‘안동역에서’를 연주하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권순의 사무국장의 사회로 권기호 능곡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묘소 망배를 하고 권기형 상임부회장이 내빈 소개를 하였다. 이어 사무국장은 권해욱 대종회 회장 등 40여 명이 화환과 난, 꽃화분을 보내왔으며 아울러 참석하지 못한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의 축전이 왔다 고 소개했다. 때마침 김광림 국회의원이 행사장에 도착하자 사회자는 김 의원에게 축사를 부탁, 김 의원은 “능곡회 회장 이·취임식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시킬 심부름이 있

면 열심히 심부름을 하겠다”고 말했다. 곧 이어 권기호 회장은 나이 제한으로 능우회로 넘어가는 권순모르홀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주최 측은 행사장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권영국, 김재영 2인조 색소폰 팀이 출연, ‘오동일’ ‘시계바늘’ 등 4곡의 연주가 끝나자 앙코르를 연주하는 바람에 ‘안동역에서’를 연주하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권순의 사무국장의 사회로 권기호 능곡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묘소 망배를 하고 권기형 상임부회장이 내빈 소개를 하였다. 이어 사무국장은 권해욱 대종회 회장 등 40여 명이 화환과 난, 꽃화분을 보내왔으며 아울러 참석하지 못한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의 축전이 왔다 고 소개했다. 때마침 김광림 국회의원이 행사장에 도착하자 사회자는 김 의원에게 축사를 부탁, 김 의원은 “능곡회 회장 이·취임식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시킬 심부름이 있

면 열심히 심부름을 하겠다”고 말했다. 곧 이어 권기호 회장은 나이 제한으로 능우회로 넘어가는 권순모르홀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주최 측은 행사장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권영국, 김재영 2인조 색소폰 팀이 출연, ‘오동일’ ‘시계바늘’ 등 4곡의 연주가 끝나자 앙코르를 연주하는 바람에 ‘안동역에서’를 연주하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쇄석골재

- 1등급골재 (13mm 19mm 25mm SMA5 SMA10 SMA13)
- 쇄석골재 (8mm 10mm 13mm 19mm 25mm)
- 혼합골재 (보조기층 40mm)
- 부순모래



레미콘

- 서중·한중 콘크리트
- 황토·유황 콘크리트
- 투수 콘크리트



아스콘

- 일반 아스팔트콘크리트
- 칼라(투수) 아스콘
- 개질아스콘(SMA PMA PBS)



전문건설업

- 아스콘 포장공사
- 과속방치턱설치 공사
- 소파보수·덧씌우기 공사





회장
권 광 택

환희개발 주식회사 ☎ 043) 260 - 1775

옥산아스콘 주식회사 ☎ 043) 260 - 2205

옥산레미콘 주식회사 ☎ 043) 260 - 2222

대표이사 / 회장 권 광 택

품질과 신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